다산포럼

'글짓기'와 '지은 죄'

최 명 원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어릴 적 어린이날 기념 사생대회라든가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 같은 것을 명목으로 학교가 아닌 궁궐이나 능을 찾아 그곳에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지으면서 하루를 보낸 기억을 떠올리다가 문득 왜 하필 '글쓰기'가 아닌 '글짓기' 대회라 했을까 생각해 본다. 기일에 맞추어 내보내야 하는 글을 앞에 두고 끙끙거리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방으로 글거리를 찾아 뛰쳐나간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글짓기'에 생각을 잡아 놓고 숨고르기를 해 보니 글만이 아니라 우리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들은 몽땅 '짓는 것'이라는 발견 아닌 발견을 한다.

'~을 짓다'에는 단순히 '~을 하다'와는 달리 무적이나 진안한 과정들이 온전히 녹아들어 있다. 부뚜막 아궁이 군불 지펴 가며, 혹은 연탄불 갈아 가면서 지어 먹던 밥은 그냥 하는 밥이 아니다. 낟알 한 톨도 알뜰히 쓸어 담아 도정한 쌀을 불리고 회오리치는 조리질로, 섞여 든 돌 골라내어 쌀뜨물 우러날 때 밥솥에 안친다. 센불 약불 조절해 가면서 밥물 끓는 냄새가 김에 서려 배어 나오면 서두르지 않고 뜸을 들여 뽀얀 밥 한 그릇 지어 올렸다.

해 질 무렵 어스름 내리면 알지 못할 불안감에 쫓기듯 종종걸음으로 들어선 골목길에서는 집집마다 밥 짓는 냄새가 "어서 와서 밥 먹자"라는 엄마 목소리처럼 들리고, 그렇게 담벼락 끼고 도는 골목마다에는 여느 집 부뚜막 묵직한 솥뚜껑 사이로 밥알 익어가며 들썩이던 저녁 향기 그득했었다.

집을 짓는 것은 또 어땠을까. 집터를 다듬고 땅을 골라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 벽을 쌓아 한 식구 품어 줄 방에 구들장 놓고, 쪽마루 한 칸 여유를 두어 지붕을 얹으면 어찌어찌 모양새 갖춘 집이 한 채 지어진다. 뜨신 아랫목이 있고 창호지 바른 문이 있어 좁디좁은 집구석에서 온 가족이 살 부딪치며 복닥복닥, 간혹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살림살이가 늘어가면서, 사람 냄새 겹겹이 배어든 집은 우리가 살아 온 시간을 온전히 담아냈다.

아직 기성복이라는 말이 낯설던 그 시절, 어머님들은 천을 끊어 와 재단을 하고, 흐릿한 불빛 아래서 재봉틀 바늘에 실을 꿰어 들들거리는 소리 장단 맞추면, 노루발 아래로 양쪽 맞물린 천들이 행진하듯 비집고 나온다. 비죽비죽 밀려 나오는 천들을 낚아채어 무릎 위에 놓고 돋보기 얹은 눈, 손놀림 바쁜 '마무새'(마무리)로 옷 한 벌이 지어졌다.

옷도 지어 입고 밥도 지어 먹고 살았던 그 시절이 '가난'의 아이콘이 되어 버린 지금, 우리는 옷도 짓지 않고 밥도 짓지 않는다. '밥하기'는 전기밥솥 버튼 하나 누르기와 같은 말이 되었고, 그마저도 사 먹는 밥이 대세가 되어 간다. 잘 만들어진 옷도 한 벌 사 오면 그만이라, '짓던 것'은 '만드는 것'이 되고 '하는 것'이 되더니 이제는 그조차도 그냥 '사오는 것'이면 된다. 그렇게 지어지던 것들은 점차 사라지고,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따로 따로 남게 되면서 짓는 정성과 거기 배어든 마음도 자리를 잃었다.

그런데 먹고 자고 입는 것만큼 절실하게 삶을 가르는 것도 아닌 글이 이렇게 '짓는' 것에 한몫을 하고 있다. 게다가 세상 좋아져 밥조차도 사오면 그만으로 등돌린 지금에도, 함부로 내뱉어지는 말은 있어도 아무렇게나 싸질러 놓는 강아지똥처럼 글을 짓지는 않는다.

먹고 자고 입는 것들이 저잣거리로 나앉았어도 '짓는 정성'을 오롯이 지켜가는 것이 글이라는 생각에 우쭐하던 것도 잠시, '짓다'와 동행권을 가진 녀석 하나가 번드르르한 낯짝을 들이밀며 의기양양 달려가던 생각을 잡아 세운다. 그건 바로 '죄'다. 때로는 심심한 돌멩이 하나가, 때로는 제법 묵직한 바윗돌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얹어지고 쌓여 가듯이 그렇게 죄가 지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한다. '글짓기'로 으쓱했던 어깨는 힘없이 내려앉고 순간 환하던 불빛이 사라진 어두움 속에서 구차한 변명들이 꿈틀거린다.

'죄 하다'라는 말이 좀처럼 세간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 가볍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알게 모르게 차근차근 다져지고 준비된 행위와 의도를 모두 담고 있다는 말일 게다. 그래서 '지은 죄'의 모양새인 '죄상'을 보려면 숨은 고리들이 겹겹이 똬리를 틀고 앉아 있는 그 안이 낱낱이 파헤쳐져야 하는가 보다. 어제와 내일 사이에서 오늘을 살면서, 그 삶이 엮여지는 시간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죄를 함께 짓고 있는지, 한 번쯤 묻고 가야 할 것 같다.

청춘 톡·톡

미생물 정치

박 도 형
광주대 일반대학원 문예창작과
석사과정 수료

지난 11월 12일 아침. 평소와 다르게 내 하루는 일찍 시작됐다. 가방을 메고 광천터미널로 향했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민중총궐기' 민주주의의 몰락을 불러낸 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에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4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서울 초입에 들어선 버스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눈 앞에 아주 긴 버스행렬이 눈에 들어왔다. 많은 이들이 나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같은 몸짓을 보이기 위해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아마도 내 가슴은 그 순간부터 뛰기 시작했던 것 같다.

지하철 노선표를 보며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광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은 이미 사람으로 가득 차있었다. 광화문역에도 이미 많은 인파가 모여 있어 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에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듯 했다. 인파의 파도에 휩쓸려 겨우 자리를 잡고서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다같이 소리를 치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광주로 다시 돌아왔다.

버스를 타고 광주로 돌아오는 동안 다음날, 아니 다음주라도 정국이 크게 바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헛된 희망이라는 듯 청와대와 여당은 변하지 않았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여당. 이 삼박자에 대항하기 위한 듯 야 3당은 규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기대를 걸었고 바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쉬워 보이지 않았다.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으로 야당의 공조가 분열하려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불안한 마음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11월 26일 나는 광주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당일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을까, 날씨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하며 낙담했다. 오후 4시부터 금남로 일대를 우산을 쓴 채 바라보며 사람들이 모이길 기대했다. 그때 마침 한 서점 앞에서 청년자유발언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누구나 쉽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던 자리였기에 나도 신청을 하고 내 순서를 기다렸다. 내 순서가 되었고 나는 마이크를 잡고 내 생각을 짧게 뱉기 시작했다.

박근혜가 행했던 국정농단 사태에 짧게 이야기를 하고 야권이 분열하는 모습을 미생물 정치라 표현하며 비판했다. 야당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어 그들을 규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혹은 많은 사람이 걱정할 만한 이야기를 청중들 앞에서 뱉었다.

발언이 끝나고 주변에 있던 분들이 박수를 쳐줬다. 박수를 받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기보다 내 걱정과 분노를 잠시나마 풀고 싶었던 나로서는 조금은 부끄러웠다. 청년자유발언 집회가 끝날 무렵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악천 후 속에도 사람들은 금남로 일대를 가득 채웠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소리를 외치고 있음에도 내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3차 담화문 발표가 있었다. 방송을 보며 내가 걱정했던 모습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현실이 되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놓은 함정에 국회는 제대로 걸려들었다. 탄핵 발의는 힘을 잃고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야당은 분열했고, 그 중심에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있었다. 그 와중에 추미애 대표는 김무성 의원과 독대를 했고, 국민의당은 기회라도 잡은 듯이 추 대표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해, 이 정국의 분위기를 끌고나가기 위한 키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과연 그들에게 영웅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 차가운 바닥에서 촛불에 의지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국민이 영웅이지 않았던가? 그들은 그저 우리의 대변인일 뿐인데. 왜 우리의 뜻을 제대로 듣지 않고 힘을 얻기 위해 또 분열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탄핵되고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촛불을 놓지 않아야 한다. 미생물들이 판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잡고 있던 권력이 공중분해되는 순간, 그들은 공중으로 떠버린 권력을 받아먹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우리의 촛불은 그들을 다시 감시하기 위해 광장을 밝혀야 할지 모른다. 이제는 국민이, 참된 주권자인 우리가 미생물을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다.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 고

광주시 도시건축문화 어디로 향해 가는가

정 명 철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장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접한 광주시 조직개편의 일부 내용은 지역 도시건축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에 앞장서고,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광주 건축계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우려감을 표하게 했다.

그 내용은 광주시청 도시재생국내 '도시디자인과'와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정책과'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으로 통합부서의 명칭만 보더라도 '도시디자인'의 중점이 아닌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 중심의 정책기조를 읽을 수 있었다.

물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간 우리 광주를 문화중심도시이자 인본디자인도시로서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오며 밑그림을 그린 것이 '도시디자인' 전담부서였다고 본다.

특히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 형성과 공공디자인의 질적향상을 통해 광주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의 격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면, 도시재생과는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부서로 그 성격과 목적이 달라 통폐합으로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도시는 단순히 그 도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로서만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소비하고 관광하는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광주를 보고 느끼는 디자인의 요소를 컨트롤하는 중추적 역할을 과연 어디에서 해나가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가까운 일본 요코하마의 경우 1970년대 초부터 도시디자인팀을 구성하여 40여년 넘게 일관적인 도시디자인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은 한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도시디자인을 이룰 수 있었음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한다.

그동안 광주시의 도시디자인과가 추진해온 인본디자인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경관개선사업, 공공디자인 사업 등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성을 갖고 유지시켜야 한다.

특히 타시도 사례에서 7개 특·광역시에 도시디자인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보더라도 도시디자인업무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업무임을 잘 알 수 있다.

이 밖에 도시디자인 부서와 연계한 디자인 전문가인 건축인들의 활용에 대해 인식해야 하는데 서울시와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가제도는, 거대한 도시에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디자인 정책을 설정하여, 공공건축물과 정비사업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건축전문가를 투입해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건축가제도는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 되어 있다.

지난 10월 27일 조선대학교에서 광주시 주최로 진행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은 기본계획 단계부터 청소년들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고, 시민들이 제시한 미래상과 계획 목표가 수립되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시민 주체의 도시기본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많은 고심과 노력의 흔적들이 보였다.

그 도시기본계획(안)에서 도시경관계획 등 도시디자인과 연계한 여러 정책을 볼 수 있었고, 그러한 도시계획을 통해 2030년에 즈음에는 150만 광주 시민들 전체의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게 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게 했다.

도시디자인은 단순히 도시경관을 바꾸는 것이 아닌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도시를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생활 변화를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할 담당과를 통폐합하고 업무를 축소하는 것은 '꿈꾸는 문화도시'라는 시정목표와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책시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社 說

대통령 4차담화 땐 2선 퇴진 명확히 해야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주저하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돌아섰다.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는 관계없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엊그제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퇴진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되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투표하는 자유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사실상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대표도 탄핵안 자유투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10여 명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새누리당 내 탄핵 '매직 넘버'인 28명을 넘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비박계가 다시 탄핵안 표결로 돌아서고 친박계마저 이탈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 내부는 긴 침묵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어제 정연국 대변인이 매일 오전에 실시해 왔던 기자단 브리핑도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4월 퇴진'을 못 박는 마지막 승부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상당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해명할 기회를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르면 내일 4차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4월 퇴진·6월 대선' 선언을 내놓는다 해도 성난 촛불 민심을 가라앉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 담화에서는 퇴진 시점을 명시하고 즉각 2선 후퇴 등 조건 없는 사실상의 하야 선언을 해야 그나마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 리더십 시험대가 될 '김동철 비대위'

국민의당이 '김동철 비상대책위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디데이(D-day)를 사흘 남긴 시점인 데다 전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를 연기하자고 했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은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어제 국회에서 당내 최고 의결 기구인 제2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박지원 위원장의 후임으로 4선의 광주 광산구갑 김동철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한 달 반가량 당을 이끌며 전당 대회 준비를 책임진다.

하지만 신임 김 위원장의 앞날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당력을 하나로 집중시켜 대통령 탄핵이라는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기 때문이다. 애초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15일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주요 임무였지만, 탄핵 표결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떠안게 됐다. 특히 국민의당이 "탄핵은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라며 '9일 탄핵론'을 앞세워 민주당의 '2일 탄핵론'에 제동을 걸다가 야권 지지층 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신임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성공시킬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국민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탄핵을 최초로 주장했고, 국면을 주도해 왔으니 탄핵을 기필코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국민의당은 이번 탄핵안 가결에 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으로써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 내 야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87청년과 16청년

1987년 6월항쟁은 그해 4·13일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 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7년간의 전두환 독재정권을 경험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대통령을 자신들의 손으로 뽑는 것이라고 판단해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두환은 간선제 헌법을 고수하는 호헌 조치를 내렸고 이것이 국민들의 민주화 욕구에 기름을 부었다.

그해 6월 광주 금남로는 시민들로 넘쳐났다. 대학생은 물론 6월항쟁의 주역이라는 '넥타이 부대'(사무직 직장인)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인파는 도청 앞 광장에서 유동사거리까지 이어져 줄잡아 20만 명을 넘겼다. 시위대는 '호헌 철폐'를 외치며 전두환 퇴진을 요구했고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지랄탄과 사과탄을 퍼부었다. 백골단으로 불리는 사복경찰은 메케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는 시위대를 골목 끝까지 쫓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연행했다.

그로부터 29년이 흐른 요즘 금남로에선 주말마다 촛불집회가 열린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때와 같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최루가스 대신 촛불이 등장하면서 평화 집회가 일상이 됐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다. 넥타이 부대 자리에는 87년 당시 청년이었던 이들이 가장이 돼 가족의 손을 잡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87청년과 16청년의 만남'이 있었다. 6월 항쟁 당시 청년과 박근혜 탄핵 정국의 청년이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이다. 87청년들은 6월 항쟁이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지만 이후 정치권의 분열로 항쟁의 의미가 퇴색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항쟁 이후 정치 집단에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번 촛불혁명에는 대통령 퇴임 후 어떤 사회를 만들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6청년들도 대통령 퇴진을 넘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가 광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87청년과 16청년의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6월항쟁 때는 광주의 열기가 광화문을 능가했다. 금남로에서도 29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청년들의 담론이 이루어지기를.

/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